
'21년 1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2021.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년 제1차 「스마트도시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4. 2.(금) 15:00~17: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
- ◆ 참석위원 : 11명
 - 임규건 위원장, 강영욱 위원, 권순범 위원, 김규호 위원, 김태진 위원, 신희철 위원, 오영현 위원, 이경순 위원, 조영임 위원, 최정순 위원,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 ※ 배석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 소장, 뉴미디어담당관, 디지털재단 기획실장, 안전관련 팀장·주무관 등 15명
- ◆ 상정 안건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최종용역 결과 심의
 -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심의
-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사(스마트도시기획팀장)
15:05~15:10 (5')	▸ 인사말씀	위원장
15:10~16:10 (60')	▸ 안건#1. 보고 및 자문	사업수행업체 및 위원회 위원
16:10~16:30 (20')	▸ 안건#2. 보고 및 심의	뉴미디어담당관 및 위원회 위원
16:30~16:45(15')	▸ 안건#3. 자유토론	위원회 위원
16:45~16:50 (5')	▸ 마무리말씀	위원장

- ◆ 회의결과 : 붙임 참조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진행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위원장〉

개회 인사말씀

〈사업추진업체 PM〉

- 안건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최종 용역 보고

안건#1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최종 용역 보고 심사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 숫자 중심의 현장에서는 성과관리, 지표 개발이 어려움. 예를 들어 공공 와이파이 몇 개 공급했느냐는 나오지만 실제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함.
- 국제적인 홍보 차원에서 봤을 때 어워드(award) 신설 좋은 것 같음. 그런데 우리나라 자료들은 도표식이어서 검색이 어려움. 미국의 (컨설팅 회사 등의) 경우 활자 위주임.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홍보하려고 할 때 ‘그들용’으로 (영어)자료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마스터플랜을 보니 지금 활동하는 4차 산업 기업들이 대상이겠다는 기대감이 높음. 최근 CES에서 서울시가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가 더 이상 관의 사업이 아니라 철저히 상업주의적이고 돈 버는 행사인 CES에서 돈이 되고 있다는 의미임. 대시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여겨짐.

〈○○○○ 의원〉

- 비전에서부터 세부계획까지 잘 짜여진 것 같음. 전체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 묻고 궁금한 점은 로봇, AI를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위해 쓰겠다 하는데, 효과검증 해보셨는지, 로봇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게 다른 사례를 보니 효과가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AI 스피커 보급의 경우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검증이 되어야 함. 주차로봇, 돌봄 로봇...어디에나 다 로봇을 쓰겠다는, 로봇은 무조건 좋다는 만능 주의는 경계해야 함.
- 공공테스트베드 활성화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디지털 멀티미디어 도서관 건립의 경우, 서울시에 작은도서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두고 또 도서관을 만들기보다 디지털화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함.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를 디지털 멀티미디어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스마트서울 어워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위원〉

- 서울연구원 근무할 때 서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업하지만 잘못하면 책상 속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 과연 누가 주체가 될까, 누가 추진할까 생각해 보게 됨. 이 많은 사업들이 협업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일인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 명확히 하는 R&R(Role&Responsibility : 업무분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이 보완되어야 함. 타 부서에서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일인지, 선도적으로 하다가 협업하는 일인지 나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 AI를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하수관로, 교통사고 예측모델링 같은 한, 두 개 사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이제부터 시점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는 시계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모델링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음. 평면적인 게 아니라 시·공간적인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과제는 해당부서보다는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을 추진하되 사업부서와 협업해야 좋을 거 같음.

○ 성과관리나 지표와 관련해, 계획 대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보고서 안에 보니 평가체계, 평가 방안 등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이 있음. 스마트도시계획, 서울시에서 5년마다 세우는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법정계획이다보니 수립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책장에 묵혀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함. 매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걸 체크해 나가는 체계, 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로 성과평가가 되도록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 위원〉

○ 오늘 발표하신 추진전략, 세부과제까지 일관성 있게 잘 된 것 같음. 하나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

히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음. 우선 순위와 더 중요한 것들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평가를 통해 리소스(Resource)를 재조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 서울시 데이터들이 굉장히 방대함. 민간회사들은 얼마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수준임. 민간의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에서 로봇 비대면 얘기하셨지만 실제 주차장에서 실증하고 있는 단계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음. 이 과제 중에서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서 하는 게 효율적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림.

〈○○○○ 위원〉

- 글로벌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를 보면 서울은 (Cities in Motion index의 경우) 174위 중에 19위, 국제교류, 거버넌스, 환경 등이 낮은 수준으로 나와 있음. 서울하면 탑10 안에 드는 글로벌 도시인데 평균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고, 48개 중에 8위인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Global Power City Index) 평가를 보면 주거 같은 건 바닥 (39위)이고 교통은 12위로 나타남.

전자정부도 2014년, 2016년 1위 하다가 2018년 3위로 떨어졌는데 지표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음. 인프라 갖추고 잘 하다가 인적 자원 부분의 평가지표를 관리하지 못해 3위를 함. 3위는 이미지가 떨어지고 관심 밖의 나라가 되어 회복 어려움. 이걸 보고 느낀 게 서울 플랜에 1조 3천억을 쓴다는데 많은 돈을 써서 기왕 할 것이라면 지표 관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음. 지표 중심으로 보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면 한국 탑10, 탑5 안에 들 수 있고 1석2조의 효과도 있음.

- 비전이 미래 스마트 표준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도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대로 표준이 될 만 한 뭔가가 있어야 함. 지표 개발을 하거나 스마트 관련 인덱스 개발하거나 버금가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미래 스마트표준도시라는 비전이 과연 어디서 실현 되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음. 55개 사업을 하면 스마트표준도시인지 객관적이 지표가 있어야 함.
- 성과지표(KPI) 차원에서 단순히 숫자 중심의 개수나 모니터링 보다는 높은 개념의, 전체적으로 퀄리티 컨트롤 (Quality Control)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표준도시가 될 수 있음.

〈○○○○ 위원〉

- 과거 정보화기획관 시절에 전자정부 중심의, 행정 중심의 전산화·디지털화를 시행하면서 전자정부 세계 1위를 해왔었는데 이제 스마트시티정책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자정부 차원을 넘어 시민을 향한 직접적인 서비스, 전체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많은 역량을 쏟고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 스마트시티 정책에 맞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됨. 특히 그중에서도 S-NET, S-MAP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상이 내부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로 나뉘어 질 수 있음. 내부 서비스는 서울시와 모든 자치구가 될 수 있고 외부 서비스는 시민과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스마트시티가 인프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짐. 수요 기관들과 적정한 서비스를 어떻게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 매년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할 것 같음.
- 앞으로 내부, 외부의 업무와 연계해서 협의할 때는 예산 심사보다는 기술 부문에 대한 심사, 기술심사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해왔던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쏟아왔던 것의 활용성을 검사해야 구축한 부문에 대한 활용도 높아지고 스마트시티를 지향해가는 방향에도

맞을 것 같음. 스마트시티정책관에서 서비스를 다 할 수는 없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각 부서의 서비스를 4차산업 시대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 부서와 정책적인 지향을 맞춰갔으면 좋겠음.

〈○○○○ 위원〉

- 그동안의 스마트시티 계획의 변천을 보니 1차 서울정보화기본계획, 3차는 U-Seoul 마스터플랜, 5차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되는구나 생각이 듦. 서울 스마트시티 & 정보화 기본계획을 무엇으로 할 건지 생각했더니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이라고 돼 있음. 저희 연구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중심이 되고 있음. 자율차,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전환, 이런 것들 디지털 전환 잘 잡으신 거 같고 정리가 돼 있음. 다만 디지털 전환이란 건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춰 줬으면 함.
-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와 포스트 코로나와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음.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음. 백신을 맞고 마스크는 벗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행태 (Human Behavior)’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대가 대중교통 보다는 갑자기 면허를 따고 자기차량 이용하는 게 늘어나는 등 행태가 변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듦.
- 교통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 중요하지만 방향성 차원에서 ‘수요 대응형’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드론도 중요하지만 드론이라는 것은 기체에 대한 부분이고, 도심항공교통(UAM)은 교통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므로 드론 보다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을 강조하면서 가는 게 서울시 입장에선 낫지 않을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공공장소에 대한 주차장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주차)로봇이야기가 나왔음. 서울시에서도 이미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공에 대한 부분 보다는 민간과의 연결성이 중요함.
- 도로노면 정보수집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중 교통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도로노면 정보가 대중교통에 자치할 수 있는 영향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정해 줬으면 좋겠음.

〈○○○○ 위원〉

- 첫째는 굉장히 좋은 많은 것을 다 모아서 나열해 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혁신 기반, 사람 중심, 시민체감, 나름의 분류해 주시기는 했는데 요즘 핫 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이템들 다 모여 있는 거 같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시에서 중점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 플랜이라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하면 완벽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 지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고민을 하셔서 좋은 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각 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고 여력이 있으면 이런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한정된 리소스 가지고는 꼭 할 건 아닌 것도 있을 거 같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음. “5년 계획을 짜고 지난 5년 있었던 일들은 손 털고 5년 후에는 또 어느 다른 분이 계획을 짜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두 번에 있었던 5년차 계획을 바탕으로 시의 역량이 이만큼 왔으니 5년 후에 하실 우리의 후배를 위해 우리는 이만큼 해놓읍시다”라는 거라고 생각함.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쌓인 내공을 봤을 때 시가 1단계에서는 이만큼 왔고 2단계에서는 이만큼 왔고 3단계에서는 기반으로 이만큼 가고자 한다. 4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단순히 그냥 오늘을 보는 게 아니고 10년 전, 5년 후를 같이 볼 수 있는 일관된 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함.

〈○○○○ 위원〉

- 서울이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뽑아낼 수밖에 없구나, 5년 짜리 계획이니 더 많은 고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듬. 모든 영역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저런 것들도 있구나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아는 몇 개 사업을 위주로 생각해보니 21년~ 25년에 해당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하는 건데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과거에서부터 이어오는 사업 보면 2016년, 2017년부터 일들도 있고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혁신 챌린지’ 등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싶은 사업이 있음. 신규가 기대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20년까지 했던 것에 대해 평가가 되고 누가 괜찮다고 해서 가는 건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분명히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야는 당연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듬. 2026년 계획에 집중하다보면 21년부터 25년까지 제대로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도 되는지 치열하게 하나하나 떼고 고찰 건 가고 해야 하는데 계속 쌓이는 듯한 우려가 듬.
- 관에서 계획 발표 시, 계속해서 잘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실무자 단위에서 보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방향성이 잘 공유되고 동일한 방향성이 잘 내려져야 함.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관성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일관된 방향성이 있더라도 잘 안 되는 것이 특히 스마트도시, 정보화 관련해서는 보수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방향인데 실무 현업 부서의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면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나 방어적인 특히 새롭게 계획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방향성 공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에서 푸시해서 진행되는 것 대부분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붙어줘야 하고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의 서비스가 붙어야 하는데, 이들 기업의 생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스타트업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그래서 혁신챌린지, 펀드 조성, 테스트베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회성에 그치거나 효과가 미미한, 과거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을 보면 사실 단발성으로 그치고 사라져버리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는 90%이상 없어졌음. 이걸 좀 더 이대로 괜찮은가... 지속가능하게 (sustainable)하게, 의미 있는 서비스들로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

- (스마트서울) '어워드(award)'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펀드 나 해외도시에서의 실증, 실질적인 방향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거다, 서울시 안에서도 좋고 다른 도시로도 좋고 해외도시로도 좋고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발전방향이 있는 거다, 단계적 사업들이 엮여 있으면 훨씬 더, 단순히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민간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위원장〉

- 전반적인 내용은 다 리스트가 된 것으로 보임. 제 개인적인 의견도 뭔가가 중에서 임팩트 있는 거 한 두 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 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잘 채워져 있는데 뭔가 참신한 거 임팩트 있는 것을 도출하거나 방향성을 잡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음. 계획을 세우는 데, 지금 사실 시시각각 매년 바뀌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세우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음. 향후에 중요성이 부각 됐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기본계획서, 이 정도 역할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음. 액션 플랜들이 조금 더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음. 특히 얼핏 보니까 예

산이 상당히 리프하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실행하면 바로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구체성을 보완 되었으면 좋겠음.

-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안건#2 :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계획 심사

〈뉴미디어담당관〉

-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계획 보고

〈위원장〉

- 위원님 중에 조언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고령화 사회에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함.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바일을 사용하시므로 PC 및 모바일의 홈페이지에 어르신 이용자층을 위한 활자가 크고 정보가 단순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위원장〉

- 코로나 풀리면 더 행복한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 열편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음. 지난 10년 정도의 성과나 문제들을 새롭게 판단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오프라인 회의를 강행한 이유는 직접 대면해서 보고 드리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스마트도시라는 게 저도 2년이다 되어 가지만, 스마트도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면 정리하기 어려움. 그렇지만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어야 하니까 오늘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대면회의를 가지게 되었음.

- 작년엔 더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앞으로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면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역할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바람.
- 첫 번째 안전과 관련해서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다가 내용 자체도 쉽지 않고 해서 연장을 한 (용역)결과보고서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들은 용역(안)을 바탕으로 오늘 주신 의견을 감안을 하고 고민해서 최종적인 내부 계획들은 별도로 정리가 될 거 같고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임.
- 참고로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령층 정보접근성과 관련해 근래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시 산하에 디지털재단이라고 있는데 작년 이후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시 정책 중에 하나로 디지털 격차해소에 공공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고령화, 도로 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마침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얼마 전에 1차 결과물이 나왔고 언론에도 디지털재단의 '고령층을 배려하는 접근성 표준'이라고 발표를 했음. 1차로 용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시범 적용을 해보고 전체적인 확산을 계획하고 있음.

〈위원장〉

- 오늘 2021년도 스마트도시위원회 1차 회의가 잘 마무리된 것 같음. 코로나 19 위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뵈겠음.